

보랏빛 퍼플섬·갯벌·천일염...

세계인들 '1004섬' 매력에 푹 빠지다

美 NASA 청정지역 신안군 조명 獨·英·홍콩 외신들 잇따라 호평

보랏빛 퍼플섬과 갯벌, 바람과 태양이 빛은 천 일염 등 어느 것 하나 눈을 땔 수 없는 매력덩어리 1004(천사)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이 외국 유력 매체에 잇따라 소개되며 이어 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서도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신안군에 따르면 NASA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신안을 매력적이고 청정지역인 섬으로 소개했다고 전했다.

NASA는 "한국 서남해안에 위치한 신안군은 많은 사람을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있다"며 안좌면 퍼플섬을 조명했다.

NASA는 한국 갯벌은 아주 생산적인 에코시스템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에 생존하는 미생물들이 해양을 정화하고 많은 철새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라고 설명했다.

또 신안 천일염은 강한 바람과 태양으로 만들어

진다며 천일염에 많은 양의 수분,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한 자원으로 호평했다. 신안군이 유명세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독일 최대 위성TV방송 '프로지벤'과 홍콩의 여행잡지 '유 매거진'이 퍼플섬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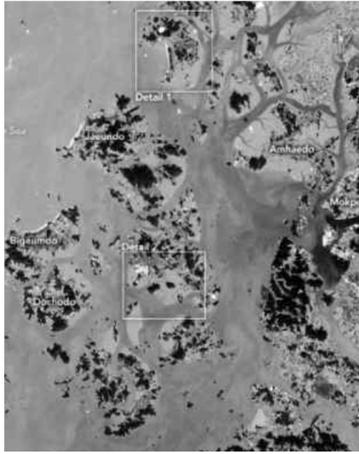
올해 미국 CNN은 '사진작가들의 꿈의 섬'이라고 보도했으며, 폭스뉴스도 '퍼플섬의 독창성'을 조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5일 로이터통신은 '퍼플에 흠뻑 젖은 한국 섬이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란 제목으로 기사를 타전했다.

안좌도 퍼플섬은 주말이면 2000여명이 찾아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 13일 현재까지 약 55만여 명이 방문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섬으로 거듭났다"며 "1도 1유지엄 조성, 세계적 꽃 피는 섬, 지역별 컬러마케팅 등 다양한 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홈페이지에 소개한 신안군 섬들의 인공위성 사진. 가운데 정사각형이 퍼플섬. <신안군 제공>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신안 지도읍 임을순·곽미정 부부, 장학금 3000만원 기탁

신안군 지도읍 임을순·곽미정 부부가 최근 신안군청을 방문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임을순·곽미정 부부는 "15년 넘게 송도수산물유통센터 내 '신안수산'을 운영하면서 신안의 발전을 지켜왔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따뜻함을 나눌 방안을 고민하다가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25년 전부터 지도읍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7000만불 수출탑 수상' 신안천사김, 1억 상당 물품 기탁

신안천사김 주식회사는 최근 장우산 8000개 등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신안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사진> 이번 기부는 신안천사김이 '7000만불 수출탑 수상'의 영광을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뤄졌다.

기부받은 장우산은 신안군 어업인 및 단체, 다문화 가정 등에, 방한모는 김생산 주역인 김양식 어업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신안천사김은 지난 2013년 신안 압해읍에 가공공장을 둔 조미김 수출 전문기업으로 직원 220명이 근무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주관 조미김 7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권동혁 신안천사김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산인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농촌 인력난 해소...진도군 '시니어 일자리 허브센터' 운영

3개 농협에 인력증개 전담반 배치 품목별 농작업 구인구직 신청받아

진도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도군 시니어 일자리 허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센터는 관내 3개 농협(진도읍, 서진도, 선진농협)에 인력증개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품목별 농작업에 대한 구인·구직 신청 접수를 받아 영농 작업 일자리 지원을 시작하게 된다.

농촌인력 증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일자리 잡거나 일손 부족 농가는 각 농협의 인력증개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개 수수료는 무료이다.

군은 고령농과 여성농, 소농, 과수·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진도 지역 농협 관계자 등이 시니어 일자리허브센터 지원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예정이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근로자의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등은 진도군에서 지원하고, 근로자 임금의 농가가 부담한다.

군은 시니어 일자리 허브센터 운영으로 농번기 유류 인력을 영농 인력으로 확보해 지역의 안정적

인 인력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시니어 일자리 허브센터는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가져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영광공공도서관 '스마트 K-도서관 공모사업' 선정

영광공공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스마트 K-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교육청의 1대1 매칭으로 지원되는 스마트 K-도서관은 자신의 이야기를

유튜브 등 콘텐츠로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대 시설과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서관은 연내 3층의 기존 강의실 공간에 방음 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조명, 카메라, 음향 등 미디어 제작 관련 부대장비 시설을 갖춘 예정이며, 미디어 창작실 조성 후에는 도서관 누리집에 공간 이용을 위한 예약기능을 탑재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같은 1인 미디어 제작과정 교육 등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해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창작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무안군 청계면 청년회, 사랑의 후원금 100만 원 기부

무안군청계면청년회(회장 김대성)가 최근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청년회 김대성 회장은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탁금은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쓰일 예정이며 청계면 청년회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집 청소 봉사활동과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서명호 청계면장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



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나눔에 앞장서 주신 청년회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후원금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